제23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박철희

소속: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 일본 9/11 총선의 의미와 정국 전망

일시: 2005년 9월 20일 (12 : 00 – 14 : 00)

<강연 내용>

9월 19일, 6자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동북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등, 요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일본 총선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 파장이 어디에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정민영화의 중요성

일본의 우체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영 우체국과 지역유지들이 심사하여 위탁경영을 맡기는 특정 우체국이 그것입니다. 우체국은 모두 국가의 보증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많은 이들이 우체국에 저금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우체국은 약 350조 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저축의 1/4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우체국이 보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이즈미 수상의 “관에서 민으로”라는 캐치 플레이에 따른 대표적인 사업이 우정민영화 사업으로, 고이즈미 수상은 국가 중심의 우정산업을 민영화 함으로써,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집권 초기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고이즈미의 우정민영화 계획은 ‘우정민영화= 고이즈미, 고이즈미= 우정민영화’라는 공식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강

력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공약의 하나입니다.

선거결과

선거 결과, 자민당은 296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여기에 연립 상태인 공명당의 31석을 합해 327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의원 재적의원의 2/3를 넘는 숫자로, 참의원에서의 부결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우정민영화에 관한 안건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시 중의원으로 회귀된 안건은 전체인원의 2/3를 넘으면 중의원에서 통과될 수 있고, 개헌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해 전체인원의 2/3를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정민영화의 국회통과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승패가 갈린 원인

원래 자민당은 도시부 중산층에서 전통적인 기반이 매우 약했습니다. 도시부 중산층에서는 자민당이 파벌정당, 지역정당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선거의 초점을 우정민영화에 대한 찬반으로 몰아 찬성은 개혁이고 반대는 보수라는 주장을 펼쳐, 공천에 의한 파벌정치 이미지, 금권정치 이미지를 탈피하였습니다. 이에 도시부 중산층은 자민당(고이즈미)의 개혁적 이상을 받아들였고, 30% 이상의 도시민이 자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동경과 수도권 88개 선거구 중 80개 선거구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는 대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Q&A

1. 자민당과 공명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강과 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민당과 공명당은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점 이외의 공통점은 없습니다. 공명당은 헌법개정에 반대하고, 자민당이 주장하는 국가 중심의 교육에도 반대합니다. 어떻

게 보면 공명당의 주장은 민주당의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우경화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자민당과 연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민당과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종교에 기반을 둔 정당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명당의 선거 총책임자이며, 차기 대표로 유력한 오오타 의원은 창가학회의 종교인이기 때문에 야스쿠니에 가 본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또, 공명당은 제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앞으로 공명당에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번 선거는 도시와 대 농촌의 선거로 신자유주의적 선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도시가 이번에 자신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도시의 이기주의가 발현된 선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자민당의 승리는 어부지리로 얻어진 승리입니까? 또, 자민당의 지역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린 가운데,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민당은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보수의 의미는 정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적 세력과도 연결된다는 의미에서의 보수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사회적 기반이 많이 와해된 상태입니다.

예전의 농촌은 자민당, 도시는 민주당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자민당과 민주당의 득표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도시부에서 자민당의 세력이 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민당의 승리는 도시부 유권자들을 계속 자민당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지역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자민당의 방식은 혁신적이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부메랑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3. 예전에는 일본정치 비전공자로 신사참배 문제 등에서 고이즈미의 부정적인 면만을 봤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일본에서 고이즈미 개인은 대단히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런 고이즈미의 재능은 자신의 카리스마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참모진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고이즈미에게는 이이지마라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는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으로, 미디어에 관한 한 천재적인 조정자입니다. 그는 모든 방송국 피디와 미디어 관계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당과 관련된 방송 내용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고이즈미와 30년 간 함께 일하면서 사소한 마찰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고이즈미와 단독으로 대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한 그의 도움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우정민영화에 대해 미국의 압력은 없었습니까?

-미국의 압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내정에 대해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강요는 할 수 없었겠지만, 일본의 우정민영화에 대해 강한 환영의 뜻을 비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정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고, 이것은 바로 미국의 이익, 재계의 이익과 합치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